【논 문】

만주 주재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의 의화단운동 이해*

박 형 신**

차 례

1. 머리말
2. 산동과 만주지역의 의화단운동
3. 만주지역 의화단운동에서 재리교(在理教)와 만주정부의 역할
4. 의화단운동의 反제국주의 및 反기독교와의 관련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18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United Presbyterian Church) 해외선교부로부터 파송되어 만주주재 개신교 선교사로 활동해온 존 로스 (John Ross, 1842~1915)는 의화단운동을 경험한 후 수 차례의 발표와 저술을 통하여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1899년에 산동과 직예에서 시작된 의화단운동은 다음 해에 만주지역에까지 전파되었으며 청나라에 대한 지지와 외세의 배격을 의미하는 '보국멸양(保國滅洋)'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의화단은 동삼성(東三省)이라 불리는 봉천성(奉天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 무술훈련의 예비단계를 거쳐 6월과 7월에는 집중적으로 기독교 관련 건물들을 방화하고 외국인 선교사와 중국인 교인을 살해하였으며, 외세와 제국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철로 등을 공격하였다. 로스는, 절제운동을 표방하던 재리교(在理教)가 의화단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의 단원들에 의한 열광적이고 파괴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음

www.kci.go.kr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전임강사

을 강조하였다. 또한, 만주지역의 성경부도통(盛京副都統) 진창(晋昌)을 비롯한 만주족 고위관료들과 군대는 북경의 중앙정부와의 연계 아래 의화단의 활동들에 직접적으로 협력하였음을 말하였다. 중국에서 약 28년간 선교활동을 해온 로스는 19세기 말엽에 활발하게 분출되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공감하면서, 의화단운동의 본질을 반외세 및 반제국주의적운동이라고 파악하였다. 1897년에 일어난 조주교안(曹州教案)을 구실로 교주만(膠州灣)을 장악한 후 산동에 진출하여 영토의 조차를 강행한 독일의 제국주의야말로 의화단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보았다. 또한, 의화단운동이 보여준 외국물품과 외국인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벌은 이 운동의 반외세적, 반제국주의적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로스는 의화단운동이 반기독교(反基督教)운동이었는지의 여부를 논하였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교회와 정치를 연계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사제들의 관리행세와 재판에의 불법적 관여가 기독교 측의 의화단운동에 대한 중요한 책임소재라고 보았고, 일부 개신교 선교사들의 거만한 태도 역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로스는 의화단운동이 '기독교선교와의 전쟁'(a missionary war)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일종의 '문화적 전쟁'(a cultural war)이었으며, 따라서 그 본질은 반기독교운동이 아니라 반외세 및 반제국주의운동이라고 보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존 로스의 만주 의화단운동에 대한 연구는 재리교와 만주족 관료층의 의화단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선교사들의 입장을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도, 의화단운동과 관련한 전통적, 사회주의적 역사서술인 기독교의 제국주의 첨병론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주제어 : 존 로스, 의화단운동, 만주, 재리교(在理教), 만주족, 반제국주의, 반기독교, 반외세

1. 머리말

1899년부터 1900년까지 산동 및 북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the Boxer Uprising)에 대하여, 이미 그 운동의 성격과 전개상황, 청나라 만주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www.kci.go.kr

의 중국침략과 8개국 연합군에 의한 의화단 진압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 왔다.[1)]

이 연구는 만주지역에서 의화단운동을 몸소 겪었고 이후 그 운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기를 원했던 한 기독교 선교사의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의화단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동, 직예 및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산동보다는 늦은 시기이지만 만주지역에서도 의화단운동은 매우 강한 기세로 외세배격 및 반기독교운동을 벌였다. 250년 이상 청나라의 정권을 유지해온 만주족의 발상지요 그들의 기풍과 문화를 보존해오던 만주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망을 통하여 의화단을 적극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동안 의화단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던 교회와 선교사들로부터의 연구 또는 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1860년대 이래 중국사회에 빈발했던 교안(教案)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의화단운동을 파악하고 선교사를 '제국주의 열강의 첨병'으로 낙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교회 주체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미시적인 이해 또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이해의 도출 역시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John Ross, 1842~1915)는 1872년에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해외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동 교단의 만주지역 개척선교사가 되었다.[2)] 만주의 개항장 영구(營口)를 거쳐 내륙의 심

1) 의화단운동에 관한 주요 저서 및 학위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Esherick, Joseph W., 1987, *The Origins of the Boxer Uprising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차경애, 1994,『義和團運動과 帝國主義列强 : 義和團運動과 鎭壓過程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Cohen, Paul A., 1997, *History in Three Keys :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이은자, 2002,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Bickers, Robert and R. G. Tiedemann, ed., 2007, *The Boxers, China, and the World*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 존 로스 이전에, 영국장로교회 (English Presbyterian Church) 선교부 소속의 윌리암 번즈 (William C. Burns)가 1867년에 최초의 만주주재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고, 뒤이어 1869년에 아일랜드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선교부의 J. M. Hunter와 Hugh Waddell이 영구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양(審陽)에 정착한 그는 건강악화로 1910년에 은퇴할 때까지 약 38년 동안 드넓은 만주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중국 개신교계의 주요한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만주내륙 최초의 개신교회인 동관교회(東關教會)와 신학교를 심양에 세웠으며 만주전역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감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만주에서 한족(漢族)뿐만 아니라 만주족(滿洲族)과 조선(朝鮮)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언어와 역사에 관한 저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3] 그는, 역사상 최초로 조선인 번역자들과 함께 한글신약성서를 번역, 출판 및 배포하였으며 이후 초기 한국기독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로스는 만주 의화단운동에 대한 서술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개신교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다. 여타 만주주재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저작을 남긴 사람으로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의사였던 더걸드 크리스티(Dugald Christie)와 아일랜드 출신의 F. W. S. 오닐(F. W. S. O'Neill)이 있다. 두 저자들은 자신들의 회고록 가운데 일부를 할애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의화단운동을 묘사하여 만주 의화단운동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별히,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주에서 피신하였던 선교사 중의 한 명이었던 오닐은, 로스의 의화단운동에 대한 견해와 비슷하게 의화단운동의 원인은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한 유럽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unscrupulous conduct)'에 기인한다고 보았다.[4] 의화단운동이 일어난 후 로스는 그 운동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몰락상황을 정리하여 본국 선교부에 지속적으로 글을 기고하였고 그것은 곧 *The*

3) 존 로스 (John Ross)는 만주족(滿洲族), 한족(漢族), 및 조선(朝鮮)의 언어와 역사 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저술을 남겼다. 1877, *Corean Primer*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 1877, *Chinese Foreign Policy* ; 1880, *The Manchus* Paisley : Parlane ; 1881,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 1891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Elliot Stock ; 1901,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 Glasgow : Philosophical Society of Glasgow ; 1909, *The Original Religion of China* Edinburgh : Oliphant Anderson & Ferrier, 1909. etc.

4) Dugald Christie, *Thirty Years in Moukden, 1883~1913 : Being the Experiences and Recollections of Dugald Christie, C.M.G.* London : Constable and Company, 1914 과 F. W. S. O'Neill, *The Call of the East* London : James Clarke & Co., 1919 참조.

Boxers In Manchuria(1901)라는 제목의 합본으로 선교부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같은 소재를 다룬 또 다른 저서 *The Situation in China*(1901?)을 아마도 같은 해에 편찬하였고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1900~1901)라는 저서 역시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이 세 가지의 자료들을 선정하고 또한 그의 다른 글들을 참조한다. 로스의 견해를 다루기 전에, 필자는 아래의 2장에서 산동에서의 의화단운동의 기원, 만주지역에서의 의화단운동의 전개, 만주 기독교의 상황과 의화단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2. 산동과 만주지역의 의화단운동

1) 산동지역의 의화단운동

1900년에 만주지역에서 발발하였던 의화단운동은 그 이전 해에 산동지역에서 일어난 의화단운동에 기원한다. 이 운동은 산동과 직예의 경계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외국인들을 살상하고 교회와 외래물자들을 파괴하였는데[5] 그 시기와 무대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영토할양의 압박과 경제적 침략이 고조되던 19세기 말의 북중국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드러난다. 일찍이 19세기 초반부터 서양세력과 대면하면서 변법, 부강의 사상이 넓게 퍼졌던 남쪽지역에 비해 보다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북방지역에서는 1894년의 청일전쟁의 경험조차 서양의 수용보다는 외세배척운동의 배경이 되었다.[6] 1897년에 독일은 산동지역의 조주교안(曹州教案)을 절호의 기

5) 중국자료에 의하면, 의화단운동 기간 중에 중국전체에서 개신교 측에서 188명의 외국선교사들, 5,000여명의 신자들, 그리고 예배당의 3/4이 훼파되었다. 천주교 측에서는 5명의 주교들, 29명, 31명 또는 53명의 외국선교사들, 9명의 수녀들, 그리고 2, 3만명의 신자들이 살해되었다. 羅偉虹. 2004,『中國基督教』, 北京：五州傳播出版社, 22쪽 ;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 『中國基督教基础知識』, 北京：宗教文化出版社, 74쪽 ; 晏可佳. 2004, 『中國天主教』, 北京：五州傳播出版社, 50쪽 ;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 『中國天主教基础知識』, 北京：宗教文化出版社, 243쪽.

회로 삼아 청도를 점령하고 철도부설권을 얻는 등 제국주의적 압박을 가속화하였으며,[7] 열강들의 다양한 경제침탈로 인하여 산동의 중국인들이 경제적인 피폐를 경험하였다. 또한 긴 가뭄과 1899년의 황하 대홍수 등 빈발한 자연재해 역시 이 운동 발발의 중요한 배경으로 간주된다.

산동지역 의화단의 기원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다양한 연구들이 드러내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의화단의 전신인 의화권(義和拳)이 팔괘교(八卦教)와 같은 백련교(白蓮教, the White Lotus Sect) 전통에 기원한다고 보는 견해이다.[8] 원대 이래로 특히 비한족 정권에 대하여 강한 저항을 보였던 백련교는 가경제(嘉慶帝, 1796~1820)의 재위 초기인 1796~1804년에 반청운동을 벌였지만 진압되고 말았다. 청대 후기 의화권은 반청 경향의 백련교와 관련을 맺지만 그 임무는 초기 팔괘교의 반청(反淸)이 아니라 반서양(反西洋)이었다고 보기도 한다.[9] 둘째, 조셉 에셔릭(Joseph Esherick)의 연구에 따르면, 의화단의 기원은 산동지역의 민간대중문화에서 비롯된다. 이 운동의 주역은 백련교와 같은 반왕조적 소종파들이 아니라 대도회(大刀會)와 같은 마을단위의 자경단이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중국 만주족 통치자들 및 그들의 청조"에 대하여 결코 반역적이지 않았으며, 그 표어인 "부청멸양"(扶淸滅洋)이 보여주듯이 외국인들, 외국기독교, 그리고 중국인 개종자들에 대항한 운동을 추구했음을 강조한다.[10] 셋째 견해는 산동인들의 배외운동 및 경제적 박탈감을 강조하는데, 임마누엘 쉬(Immanuel C. Y. Hsü)와 같은 학자는 이 운동의 참여자 중에 사실상 반청그룹이 있었다고 인

6) 신승하, 1990,『중국근대사』, 대명출판사, 241쪽. 동남부 성의 지도자들이었던 호광총독(湖廣總督) 장지동(張之洞), 양강총독(兩江總督) 유곤일(劉坤一), 그리고 광동(廣東)의 이홍장(李鴻章)이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하였으며, 서태후(西太后)로부터의 내려온 중요한 결정, 즉 제국주의열강에 대한 선전포고 지시조차 거부하고 오히려 동남부의 보호를 위하여 서양열강과 별도의 장정을 체결하였던 것도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책 252쪽 참조.

7) 백준기・최정수・정상수・최재희, 2007,『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125쪽.

8) 牟鐘鑒, 張踐, 2003,『中國宗教通史』下(修訂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22~1023쪽.

9) 앞의 책, 1024쪽.

10) Esherick, Joseph W., Ibid., xiii~xiv쪽.

www.kci.go.kr

정하면서 외국 물질문명과 기독교에 대한 배격 그리고 외국의 경제적 침투와 관련된 산동인들의 경제적 좌절을 주된 동인으로 본다.[11]

의화단은 북경까지 진출하여 외국공사관을 포위하였지만, 8월초에 8개국 연합정벌군(the expedition armies)이 북경으로 진격함에 따라 서태후(西太后) 만주족 정권은 서안(西安)으로 도피하고 말았다. 결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하류계층이 참여하는 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의 의화단운동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1900년 10월까지는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전에 양무개혁을 통해 근대화에 앞장섰던 이홍장(李鴻章)이 주도하여 11개 제국주의 열강과 신축조약(辛丑條約)을 맺은 결과, 청나라는 4억5천만 냥에 달하는 배상금을 40년 동안에 걸쳐 그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불해야 했으며[12] 청조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2) 만주지역의 의화단운동

산동지역에서 일어난 의화단운동은 동삼성(東三省)이라 불리는 만주(滿洲)에도 파급되었다. 동북통사『東北通史』에 따르면, 의화단은 바닷길을 통하여 산동지역에 가까운 봉천성(奉天省)의 개항장 우장(牛莊)에 1900년 1~2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또한 내륙인 산해관(山海關)을 통해서도 들어왔다.[13]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총알이 자신들의 몸을 관통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소유한 의화단은 6월 들어 성도(省都) 심양(審陽)에서도 무술훈련을 시작하였다. 운동의 초기에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실직한 수공업자, 철도 노동자들, 파산한 농민, 점원, 부역자 등도 가담하였다."[14] 봉천성에서의 운동은 류희록(劉喜祿) 등이 주도하였으며, 곧 심

11) Hsü, Immanuel C. Y., 1980, "Late Ch'ing Foreign Relations, 1866~190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Late Ch'ing, 1800~1911* part II vol.11, London, New York, and Melbourn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7~118쪽.

12) 존 킹 페어뱅크 · 중국사연구회 옮김, 1994, 『신중국사』, 까치 (1992, *China : A New History*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300쪽 ; Hsü, Ibid, 126쪽.

13) 李志亭, 2003,『東北通史』, 鄭州 : 中州古籍出版社, 595~596쪽, 666쪽.

14) 李志亭, 2003, 앞의 책, 595~596쪽.

www.kci.go.kr

양뿐만 아니라 해성(海城), 흥경(興京), 관전(寬甸), 개원(開原) 등지의 주요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만주의 의화단은 이전의 산동 및 직예의 의화단과 유사하게 "'보국멸양(保國滅洋)'의 구호를 표방하였는데, 일단의 청국군과 공직자들이 의화단의 활동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하였다."[15] 본격적인 단계로서, 심양의 경우 6월 중순부터 '양귀자(洋鬼子)' 전단이 시내에 돌기 시작했다. 곧이어 의화단은 6월 말과 7월 초에 기독교회 관련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 그 이외의 활동으로는, 청국군(淸國軍)이 심양의 기차역을 공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요양(遼陽), 철령(鐵岭) 등지에서도 의화단과 청국군이 연합하여 교회와 기차역, 철로 등을 공격하였다.

길림성(吉林省)과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도 의화단운동이 일어났다. 길림성에서는 5~6월 이후에 중심도시인 길림(吉林)과 장춘(長春) 등지에서 무술훈련이 시작되었으며 개신교회 및 천주교회 교회당, 서양병원, 서양인의 주택, 그리고 기차역이 불탔다.[16] 만주를 통하여 세력확대를 꾀하던 러시아와 접한 흑룡강성에서도 5~6월까지는 의화단이 훈련을 시작하여 교회당 등지를 공격하였다. 7월에는 의화단과 청국군, 그리고 동철(東鐵, Chinese Eastern Railway) 건설 노동자 등이 규합하여 러시아 군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세력약세로 후퇴하고 말았다.[17]

종합해볼 때, 만주의 의화단운동은 산동지역의 의화단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봉천성으로부터 길림성과 흑룡강성으로 퍼져나갔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미신을 동반한 무술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실업자와 노동자들, 농민 등이 가세하였다. 이 운동은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천주교 및 개신교 교회당, 외국인주거지, 기차역 및 철로 등을 공격하면서 반외세, 반제국주의, 반기독교 운동의 모습을 띠었다. 특히, 초기부터 청정부와 친화적 관계를 갖고 청국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였으며 러시아군대와 교전을 벌였던 점도

15) 앞의 책, 596쪽
16) 앞의 책, 597쪽.
17) 앞의 책, 597~600쪽.

www.kci.go.kr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의화단운동을 구실로 남하하기 시작한 러시아군대는 7월부터 10월까지 만주의 주요도시들, 즉 하얼빈, 철령, 심양, 그리고 우장과 같은 주요도시들을 점령하였다.[18] 의화단과 청국군의 활동은 미미해졌고 10월까지는 모든 의화단의 활동이 사라졌다. 러시아의 남하는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만주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장지동(張之洞)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정치인들과 다른 외국열강들, 특히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은 수년 후 러일전쟁(1904~1905)으로 귀결되었다.

3) 만주지역 기독교의 피해

의화단운동 이전에 천주교회는 이미 만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러시아정교회(正敎會)도 흑룡강성의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다. 만주지역 천주교의 활동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목구(Apostolic Vicariate)가 설치된 것은 1838년의 일이며, 선교활동은 주로 파리외방전교회(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에 의하여 주도되었다.[19] 특히 1890년대에 교세가 급증하여 "1900년 이전 봉천성에서만 42개 교회당, 31명의 외국인선교사, 그리고 17,500명의 신자가 있었고 길림성과 흑룡강성에는 27개의 교회당, 13명의 외국인선교사, 그리고 9,000명의 교인이 있었다."[20] 한편, 일찍이 17세기에 만주의 최북단에 유입된 정교회는 중국인 사회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며,[21] 의화단운동의 전야에 와서야 하얼빈과 동철

18) Hsü, Ibid., 127쪽.

19) 만주지역 천주교회에는 1878년에 19명의 외국인선교사와 3명의 중국인 신부, 그리고 6명의 교리교사(catechist)가 있었으며, 1889년에 13,000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De La Serviere, Joseph, "The Work of the Catholic Church in China," *Chinese Recorder* vol. 44 (October 1913), 618쪽.

20) 李志亭, 앞의 책, 592쪽.

21) 제정 러시아가 만주지역으로 확장해오던 시절 1651년에 아무르(Amur)강 언덕에 세운 조그마한 마을 알바진(Albazin)에서 러시아인 개척자들과 군인들이 정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Doubrovskaia, Dina V., 2001,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n China," Stephen Uhalley and Xiaoxin Wu (ed.) *China and Christianity* Armonk and London : M. E. Sharpe, 165쪽.

www.kci.go.kr

지역의 도시들에서 교회들이 일부 설립되기 시작했다.[22]

개신교의 만주지역 진출은, 윌리암 번즈(William Burns) 선교사가 1867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개항장 영구(營口)에 주재하여 선교활동을 펼쳤던 영국장로교회(English Presbyterian Church)가 그 효시가 된다. 1869년에는 아일랜드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가 만주에 들어왔고 이어서 산동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가 1872년에 만주선교지부를 새로 설치하였다.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 선교부들은 심양과 길림을 비롯한 만주내륙지역에서 교회와 병원 및 학교를 세우며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891년에는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통합만주노회(滿洲老會, Presbytery of Manchuria)가 선교부의 협력 하에 창설되었다.[23] 1893년에는 비(非)장로교회 계열의 덴마크루터교회(Danish Lutheran Church)가 들어와서 남만주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넓혀나갔다. 1895년에 봉천성의 개신교는 "대도시들과 향진(鄕鎭)에 100여 곳의 교회당이 분포하였으며" 그 신자들의 수효는 "1896년에 5,800명으로 발전하였고 1898년까지는 19,600인으로 급증하였다."[24]

의화단운동은 청일전쟁 이후 확장일로에 있던 만주의 개신교와 천주교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의화단 단원들과 청정부의 군대는 거의 모든 개신교 예배당, 채플, 서양식 병원들, 그리고 천주교교당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였다. 예를 들면, 심양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로서 대동문(大東門) 밖에 위치하였던 동관교회(東關教會)와 서양선교사들의 주택, 그리고 선교병원이 6월 30일과 7월1일 양일에 걸쳐 의화단에 의하여 잿더미가 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6월과 7월에 걸쳐 우장(牛莊)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으로 피신하였다. 남성 선교사들의 희생은 없었지만, 두 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피신처에서 사망하였다.[25] 한 자료에 따르면, 의화단의 파괴활동이 집중되었던 1900년 6월

22) "An Outline of the Russian Orthodoxy in Manchuria," *Contemporary Manchuria* vol.II no.6 (November 1938), 85쪽.

23) "Supplement" to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June 1892), 19쪽.

24) 李志亭, 앞의 책, 592쪽.

www.kci.go.kr

부터 8월까지 311명의 중국 및 만주족 개신교인들이 살해되었다.[26] 한편, 남문(南門) 밖에 위치한 심양남관천주교당(沈陽南關天主教堂)에서는 천주교 측과 청국군의 포격지원을 받은 의화단 측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 결국 7월 3일에 청국군의 포격과 의화단의 진입으로 교당이 불타고 기륭(記隆) 주교와 5명의 프랑스 신부, 2명의 중국신부, 2명의 프랑스 수녀, 그리고 일요일 미사 이후 교당 내에 은신해있던 신도 400여명이 희생되었다. 봉천성 전체로는 1명의 주교, 10명의 외국신부, 3명의 중국신부, 그리고 1,500여명의 신도들이 피살되었다.[27]

3. 만주지역 의화단운동에서 재리교(在理教)와 만주정부의 역할

1) 만주지역 의화단운동과 재리교(在理教)의 관계

산동, 직예, 그리고 만주 등지에서 일어난 의화단운동이 정치적 권력 또는 일부의 사회적 세력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종교적 또는 민중적인 지지를 획득하면서 전개된 점은 주목할 만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존 로스가 만주 의화단운동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특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만주지역 의화단운동의 특색으로서 약 25년 전에 북중국 천진(天津)

25) *Missionary Heral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Sept. 1900) : 224~5쪽 ; Omelvena, Ethel, 1957, *Sketches from a Medical Missionary's Life in Manchuria, 1898~1929* The Centre for the Study of World Christianity, University of Edinburgh. Ref. #40, Box #1.

26) O'Neill, F. W. S., 1919, *The Call of the East* London : James Clarke & Co., 40~41쪽.

27) 앞의 책, 596쪽 ; 심양남관천주교당 내부의 "沈陽耶穌經心堂記" ; Ross, Ibid., 9쪽 ;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 『中國天主教基础知識』, 北京 : 宗教文化出版社, 241쪽. 동관교회가 피해를 입은 날은 양력으로 6월 30일이며 음력으로는 6월 4일에 해당한다. Ross, John,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Edinburgh : the Church of Scotland Office, 9쪽. 중국 및 선교사들의 기록들은 음력, 음력 및 양력, 또는 양력으로 다양하게 날짜를 기록하여 주의를 요한다.

에서 기원하였고 이후 만주지역에 보급된 재리교(在理教, 'the Tsai li ti')가 의화단운동에 깊이 관련하였음에 주목한다.[28] 그에 따르면, 천진에서 재리교 회원들은 "재리교의 표시(badge)로서 변발머리에 흰색실을 매었으며, 그 회원의 수가 크게 늘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자 당국이 흰색실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그 흰색실 표시는 사라졌고 재리교가 만주에 등장하였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29] 재리교가 섬기는 신적존재는 관음(觀音, Kuan Yin) 또는 관음보살이며 도교적인 유래를 갖는다고 보았다.[30]

재리교의 기원 및 반청성향을 상실한 만주의 재리교에 대한 로스의 설명은 다른 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리교의 창시자들은 산동 출신의 도교인으로 양조(楊祖)라고 불리는 래여와, 천진(天津) 출신으로서 양조에게서 수도하였고 윤조(尹祖)라고 불리는 암생(巖生)이다.[31] 재리교는 '이문'(理門), '이교,' 또는 '백의도'로, 그 신도들은 '재리'(在理)로 불리웠다고 한다. 그 기원은 로스의 이해보다는 훨씬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가경제(嘉慶帝) 시절 백련교가 반청반란을 일으켰을 때 재리교 역시 탄압되었고 그들의 모든 전도장소들은 봉쇄되었다.[32] 재리교는 백련교의 일파로서 초기에 '한마음으로 대명(大明)을 지킨다'는 반청복명(反清復明)의 종지를 표방하였지만,[33] 1890년대 초까지는 이미 반청단체임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난다. 1891년에 열하(熱河)지역에서 봉건적 지방정부와 외국인들을 대항하여 동몽골(Eastern Mongol)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그 표어는 '부청멸양'(扶清滅洋), '부보중화축거외양'(扶保中華逐去外洋)과 같은 주로 반외세적인 것이었다. 금단도교(金丹道教)와 같은 주요

28) Ross, Ibid., 5쪽. 존 로스는 재리교를 'the *Tsai li ti* sect' 또는 '在裏'로 표기하였는데, 후자의 한자표현은 '在理'에 대한 오해로 보인다.

29) Ross, Ibid.

30) 재리교의 관음상(觀音像)은 또한 금신노불아(金身老佛爺)로 불렸다. 왕치심, 1988,『중국종교사상사』, 전명용 옮김. 이론과 실천, 239쪽.

31) 왕치심, 앞의 책, 239쪽.

32) 왕치심, 앞의 책, 239쪽.

33) 李志亭, 앞의 책, 594쪽.

www.kci.go.kr

단체들와 함께 재리교(在理教)도 이 봉기에 참여하였다.[34]

한편, 존 로스는 만주의 재리교가 "모든 형태의 알코올 음료, 그리고 담배와 아편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흡연'을 배격하였으며 아편흡연의 치료를 위하여 매우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많은 처참한 흡연의 노예들이 그 압제적이고 파괴적인 갈망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종파에 가담했다"고 언급하여 재리교가 금연 금주의 절제운동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35] 또한, 물질적 번영보다는 정신적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종파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개신교로 전향하여 "탁월하고 지성적인" 교인들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도교가 인내(forbearance)와 같은 덕목을 통하여 유교보다는 기독교의 교훈에 더 근접한다고 보았다.[36] 하지만, 재리교의 구성원들 중에는 만주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도박을 하며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37]

로스는, 19세기말 만주족 보수정치세력의 정권회복과 함께 재리교의 회원구성에 변화가 왔는데, 하위계층이 그 대다수를 차지했던 경향에서 점차 상위계층, 즉 만주족 지배계급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원래 재리교의 구성원들은 촌락의 경우, 도박자, 범죄자들과 같이 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도시에서도 하급관료나 일반병사들이 많았고 고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반(反)개혁당(the anti-Reform Party) 활동이 온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만주족(the Manchus)이 하나가 되어 외세를 반대하고 혐오할 즈음에, 만주족은 무리를 지어 재리교에 가담하였으며 재리교를 반외세운동 기관으로 만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38]을 지적하였다. 서태후의 회귀와 함께 만주족 권력층과 재리교 간에 상호관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로스에 따르면, 고급

34) 李志亭, 앞의 책, 594쪽.

35) Ross, Ibid. ; 李志亭, 앞의 책, 594쪽 ; 왕치심, 앞의 책, 239쪽. 이 모든 자료는 재리교가 금주 금연을 장려했음을 밝히고 있다.

36) Ross, 1901,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 Glasgow : Philosophical Society of Glasgow, 11쪽.

37) Ross,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5쪽.

38) Ross, Ibid., 5쪽.

www.kci.go.kr

관리 및 군대의 장교들, 특히 만주족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상당수 재리교에 가담하였으며 심지어 심양과 주변지역 황실가족 중 일부도 이 종파에 참여하여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로스는 넓은 의미에서 재리교 회원들을 의화단 운동 내의 한 그룹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대개 재리교와 의화단을 구별하고 재리교가 의화단 운동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는 우선, 만주지역에 이미 뿌리를 내린 재리회가 산동의 의화단을 수용하였으며, 나아가 재리회가 만주의화단 발생의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주장한다. "음력 5월말에 의화단이 만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재리회원들에 의하여 진심으로 환영받았다. … 재리교 회원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의화단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는 의화단이 없었다."[39] 그는 또한 '재리교 회원들'(the Tsaili)이 의화단운동의 최선봉에 섰으며 '의화단원들'(the Boxers)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다고 서술한다. 예를 들면, 의화단운동의 초기에 "의화단은 방화를 할 정도로 뚜렷하게 대담하지 못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젊은 재리들(youthful Tsaili)에 의하여 방화가 시작된 후에 진짜 의화단들(real Boxers)이 가세"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리교 회원들의 선봉적인 역할과 파괴적인 인상은 만주지역에 주재하였던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우장에 주재했던 아일랜드 선교사 제임스 칼슨(James Carson)은 본국 선교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지역의 교회의 박해자들 가운에 재리교(the Tsai li ti sect) 형제단보다 더 현저하고 극악무도한 자들이 없었다. 이것은 보편적 증언"이라고 보고했다.[40] 로스는 재리교 회원들의 많은 숫자와 만주지역에 뿌리내린 재리교 회원들의 보편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는데, 봉천 심양의 선교병원을 방화하는 현장에서 재리교 회원들의 숫자가 의화단원의 다섯 배였다고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의화단이 한 명일 때, 재리들은 열 명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만주의] 모든 곳에서 의화단은 무시할만한 소

www.kci.go.kr

39) Ross, Ibid., 6쪽.

40) *Missionary Heral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Nov. 1900), 278쪽.

수였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리가 수적인 결핍을 채웠으며, 군인들이 그 성스러운 선동자들에게 소총을 지원했다"고 하였다. "재리교로부터 피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재리교 회원들은 도시, 촌, 농가 등의 모든 곳에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그들에게 숨길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여 재리교가 만주지역의 기층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하였음을 언급했다.[41]

만주지역 의화단운동과 재리교의 관련에 대한 로스의 견해는 산동이나 직예에서의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재리교의 역할을 보여주는 면에서 새로운 공헌이다. 또한, 재리교가 의화단과 구분되는 그룹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의화단운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의화단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관심에 흥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재리교의 본래적인 정체성인 반청성향이 만주에 들어와 완전히 소멸되었는지, 재리교가 청일전쟁 무렵부터 기독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언급[42]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원래 도교적이고 절제운동을 하던 그룹이 어떻게 의화단운동 기간 중에 가장 파괴적인 그룹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고 있다.

2) 만주족 고위관료 및 군대의 협력

존 로스는 만주족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음을 잊지 않았다. 이미 연구되었듯이 산동에서는 총독이 의화단을 지지하였고 북경에서도 서태후와 관료들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의화단을 지지하였다. 만주에서도 비교적 초기부터 만주족 하위 및 고위관료들, 그리고 군대까지 나서서 여타 지역들에 결코 뒤지지 않게 의화단활동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물론, 모든 만주족 관료들이 의화단운동을 열렬히 환영한 것은 아니었고 그 그룹 안에서 긴장과 갈등, 그리고 타협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만주족 출신으로서 동삼성(東三省) 최고 권력자인 만주총독(Viceroy)은 개인적으로는 의

41) Ross, Ibid., 12~13쪽.
42) Ross, Ibid., 5쪽.

www.kci.go.kr

화단을 배격하고 외국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그 입장은 소외되었고 소극적으로나마 의화단을 지원하는 형세를 보여주었다. 그는 초기에 의화단운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의화단원들을 모반자로 비난하였으며, 그들이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경우에 심각한 조처들을 취하겠다고 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발표했다."[43] 그러나, 수많은 소년 소녀들이 의화단에 가입하고 대다수의 관료들과 군인들이 의화단에 동조하게 되면서, 그 자신은 애국심 없는 자, '외국인들의 친구(friend of the foreigner)'로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 제2인자인 진창(晋昌)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의화단을 옹호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새로운 포고령을 발표하도록 매일 요구받았다." 결국, 그는 6월 19일(음력 5월 23일)에 의화단을 '백성'(民)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포고령을 내렸다. "의화단에 대한 모든 위협들은 철회되었으며, '선량한 의화단 백성들'은 평화를 지킬 것이 권고되었다."[44] 한편, 그는 심양 천주교당에 대한 포격이 있기 전에도 사람을 보내 주교와 외국인들을 호위하여 도시 밖으로 피신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개신교 및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미 피신하거나 살해된 후에서야 외국인과 기독교인의 멸절(extermination of foreign and Christian)을 명하는 비밀 칙령(the secret edict)을 발표하는 등[45] 외국인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의화단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스는 만주총독이 발표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포고령들 사이에 의화단활동의 자유를 명하는 북경의 비밀칙령(secret edict)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46] 의화단운동의 기원은 아닐지라도 그 전개과정에 있어서 그는 만주족 중앙정부의 태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서태후와 측근의 반개혁

43) Ross, Ibid., 6쪽.
44) Ross, Ibid., 7쪽.
45) Ross, Ibid., 12~13쪽.
46) Ross, Ibid., 7쪽.

www.kci.go.kr

파(the extreme section of her anti-reform advisers)가 의화단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허용한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47] 사실, 1898년에 광서제(光緖帝)의 후원 아래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啓超) 등의 개혁세력들이 주도한 변법자강운동에 반발하여 쿠데타로 세력을 회복한 서태후와 수구파는 서구열강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강경책을 펴고 있었다.[48] 이러한 반개혁적이고 배외적인 만주족 중앙정부는 1900년 1월 이후부터는 의화단을 명백히 지지하였고 6월말에는 의화단의 기세에 의지하여 외국과의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49] 이 시점에 만주족의 본 고장인 만주는 서태후와 보수파의 정책에 순응해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바 만주지역의 제2권력자인 성경부도통(盛京副都統) 진창(晋昌)[50]은 만주족 출신 고위관료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화단을 지원하였던 인물로 드러난다. 로스에 따르면, 진창(晋昌, 'Chin Chang')은 북경의 고위관료였던 그의 동생을 통하여 북경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었다.[51] 그는 만주 의화단의 비교적 초기시절부터 의화단원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상관인 만주총독에게 의화단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호의적인 포고령을 내리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의화단이 구금되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여 보석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사복차림이기는 하지만 동관교회와 같은 의화단의 주요 파괴의 현장들에 많은 휘하관료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52] 심양 천주교당과의 교전에서는 군대를 인솔하고 포병대를 동원하여 대성당을 완전히 진압하고 불태우게 한 실권자이기도 하였다.[53] 군대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적극적으로 의화단활동을 지원하였는데, 동관교회를 방화할 때에 제복을 입은 장교들과 군인들이 동원

47) Ross, *The Situation in China* Edinburgh : Andrew Elliot ; Glasgow : John M'Callum & Co, 6쪽.
48) Hsü, Ibid., 115~116쪽.
49) Ibid., 121~122쪽.
50) 李志亭, 앞의 책, 596쪽.
51) Ross, John,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6쪽.
52) Ross, Ibid., 10쪽.
53) 李志亭, 앞의 책, 596쪽 ; Ross, Ibid., 11쪽.

www.kci.go.kr

되어 방화하는 단원들을 엄호하였다. 로스는 이 장교들이 관련공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54] 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만주주재 선교사들 역시 "군인들과 경찰이 모두 하나가 되어" "완전히 의화단의 편에 서있음"에 동의하였다.[55]

4. 의화단운동의 反제국주의 및 反기독교와의 관련문제

1) 반제국주의적 의화단운동

1880년에 저술한 그의 역작 *The Manchus*(만주족)에서 로스는 "만일 우리가 아편정책을 지속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대영제국의 아편무역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언하였다.[56] 20년 후 그는 아마도 아편무역에서 작동했던 근본적 동기가 의화단운동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 중국무대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진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하여 그는 호되게 비판하고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살폈다. 이러한 입장 아래, 그는 의화단운동의 본질이 반외세운동 및 반제국주의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의화단운동 전후에 출간된 그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중국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다. 1901년, 만주 주재 선교사로 활동한 지 약 28년이 되는 해에 그는 글라스고우철학회(Philosophical Society of Glasgow)에서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중국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라는 글을 발표하고 출판했다. 그는 중국민족이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정착하여 중국(Middle Kingdom)이 형성"되었으며 "3,000년 이상 연속적으로 중국에 거주해왔고" 이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몽골지방까지 진출한 것

54) Ross, Ibid., 9쪽.
55) *Missionary Heral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Sept. 1900), 228쪽.
56) Ross, John, 1880, *The Manchus* Paisley : Parlane, v 쪽.

www.kci.go.kr

으로 이해하였다.[57] 그에게 있어서 "중국인은 '병들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명력과 에너지는 능히 어떠한 유럽국가 사람들과도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개척해왔으며 근면, 인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중국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유럽인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더 열등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다.[58] 로스의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인이 "평화를 사랑하고 땅을 애호하며 지속적으로 노동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평화적이고(peaceable) 평화를 사랑하는(peace-loving)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이 의화단운동에서 말할 수 없는 파괴성을 보여주었을지라도, "적절한, 최소한 그들에게는 적절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으며,"[59] 그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민족성이나 본질적인 소양에서 온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로스는 의화단운동 발발의 주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즉 열강의 중국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보았다. 그는 1897년에 일어난 조주교안(曹州敎案) 이후 독일이 교주만(膠州灣)을 장악하고 산동반도에 진출하여 영토를 조차하였을 때 중국인들이 느꼈던 치욕감과 분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당신이 중국의 땅을 건드릴 때, 당신은 중국인의 혼(soul)을 건드리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 대하여 중국인보다 더 열렬한 신봉자는 없다. 중국인의 애국심이 여기에서 분출된다. 중국인은 또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부정의(injustice)라고 간주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없다. 그리하여, 독일인들이 산동에 상륙하고 교주만(膠州灣)을 병합(annex)하였을 때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의분(indignation)의 탄원이 전 중국에서 일어났다.[60]

57) Ross, 1901,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 Glasgow : Philosophical Society of Glasgow, 4~6쪽.
58) Ross, Ibid., 3・5・7쪽.
59) Ross, *The Situation in China* Edinburgh : Andrew Elliot ; Glasgow : John M'Callum & Co, 8쪽.

www.kci.go.kr

이 글에서 로스가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영토에 대한 분할의도를 고발하고 있음은 아주 분명하다. 그는 또한 자신들의 땅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분명히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누구보다도 중국인들을 근거리에서 만나고 이해하려 했던 선교사적 태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 의화단운동이 수그러진 후, 그는 중국인들에게 그들이 왜 의화단운동과 외국인의 추방에 대하여 그토록 환호하였는가에 대하여 묻고 그들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역시 영토의 침탈이 그 중심적인 이유로 드러난다.

> 그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의 추방에 대하여 환호했던 것은 우리들[선교사들]이 그동안 실제로 행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철수를 그렇게 긍정하는 이유가 되었다.[61]

로스는 또한 북경에서의 의화단 활동이 8개국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열강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기도 하였다. "평화체결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가능한 선택사항들 가운데, 생각할 수조차 없는 최악의 것은 중국분할의 시도가 될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래에 훨씬 더 심각한 봉기를 일으키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62] 열강의 중국영토에 대한 경쟁은 장래에 중국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리라고 예견한 것이다.

로스는 의화단운동의 반외세 또는 반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증거로 만주의 의화단원들이 보여준 극도의 반외세적인 태도를 지목하였다. 그는 *The*

60) Ross, Ibid., 8~9쪽.
61) Ross,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10~11쪽.
62) Ross, *The Situation in China* Edinburgh : Andrew Elliot ; Glasgow : John M'Callum & Co, 15쪽.

www.kci.go.kr

Boxers In Manchuria(1901)에서 비교적 초기에 만주의 의화단이 심양에서 외국 물품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외국인 관련된 자들을 징벌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의화단원들은 우선, 외국물품, 외국물품 관련 상인들, 그리고 외국물품 사용자들을 제재하였다.[63] 그에 따르면, 당시 등유(kerosene)가 심양과 만주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었는데, 의화단원들은 등유를 파는 상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등유를 모두 몰수하였으며 상인들에게 심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영국의 버밍햄에서 들여온 놋쇠단추가 많은 상점들에서 팔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착된 옷을 입은 사람들도 거리에서 제재를 받았다. 영국과 미국산 수입면화 상점이 공격을 받았으며 작은 배들에 실린 면화는 강에 던져지거나 소각, 또는 의화단원들에 의해 탈취되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가구나 외국식을 모방한 가구들은 파괴되었다. 로스 선교사가 산동에서 가져온 수많은 포도나무 줄기와 접목된 과일나무들이 있는 정원 역시 파괴되었는데, 그는 "중국인과 같이 꽃과 식물을 아주 사랑하는 민족, 특히 비범하고 낯선 것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단지 '광기어린 배외성'(anti-foreign fit of madness)만이 그러한 [파괴적]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64] 한편, 어떤 모양으로든지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는데, 예를 들면, 선교사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발을 사용하던 환자가 참수되었고, 외국인의 친구 또는 외국인에게 빚진 자는 살해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기독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레꾼, 세탁소 주인, 우물 청소원 등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자들이 살해되거나 벌금을 내야만 했다.[65] 이렇듯이, 로스는 외국물품에 대한 극도의 배격,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조차 고난을 당했던 사례들에서 의화단의 반외세운동, 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63) Ross,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3쪽.
64) Ross, Ibid., 3쪽.
65) Ross, Ibid., 4쪽.

www.kci.go.kr

로스의 반외세 및 반제국주의적 의화단운동 인식은 19세기 말에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후대의 사회주의적 역사서술과 기본적인 의미에서 소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의화단운동은 부청멸양(扶清滅洋)의 구호와 함께 근본적으로 반외세,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또한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서술은, 의화단운동을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인민들이 제국주의에 항거한 애국운동으로 정의한다.[66] 이러한 논조는 비(非)중국학자들의 의화단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신승하(辛勝夏)는 『中國近代史』(1990)에서 의화단운동을 "가난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제국주의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운동의 가장 중심적 의의를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과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찾았다.[67] 사실, 로스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했지만, 이는 그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식은, 그가 형식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서구열강 중의 한 나라, 즉 대영제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거주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역사인식에 터하여 자신이 속한 제국주의적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화단운동은 반기독교(反基督教)운동이었는가?

산동, 직예, 만주 등지에서 천주교, 정교회 및 개신교를 망라한 기독교회는 의화단에 의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예배당, 대성당, 의료기관, 선교사들의 주택이 방화되거나 파괴되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의화단의 본격적인 활동 기간에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중국인 신자들은 배교와 죽음 중에

66) 姚民權, 羅偉虹, 2000, 『中國基督教簡史』, 北京 : 宗教文化出版社, 121쪽 ; 李志亭, 앞의 책, 595~600쪽.
67) 신승하, 1990, 『中國近代史』, 서울 : 대명출판사, 261쪽.

www.kci.go.kr

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많은 중국인들과 유럽인들은 기독교선교를 의화단운동 발발의 주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의화단운동은 본질은 정말로 반기독교(反基督教)운동이었을까? 이 운동이 1800년대 중반부터 중국사회에 면면히 이어져왔던 구교(仇教)운동, 즉 교안(教案)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는 반외세주의와 반제국주의투쟁에 연루된 희생양이었는가? 운동의 본질은 혹시, 무속신앙이나 재리교와 같은 도교, 그리고 불교와 같은, 중국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들의 새로운 종교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이었는가?[68] 아니면, 힘겹게 국내정치의 패권을 탈환한 만주족 정권과 일부 고위관료들이 청일전쟁 이후의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중의 정치적 에너지를 대외적으로 분출시킨 일종의 정치행위이었는가? 이러한 논점에 대한 로스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의화단운동 직후 로스는, 그의 글 *The Situation In China*에서 "선교사들은 정치적 첩보원인가?"(Are Missionaries Political Agents?)라는 소제목 하에 선교사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그는, "'선교부(missions)라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군대를 지원하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할 친외세파(pro-foreign party)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지원되고 조직되는 정치적 첩보기관(political agency)'이라는 관념이 일반 중국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으로 존재한다"고 언급하여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부에 대한 정치적 의심이 있음을 적시하였다.[69] 또한 이러한 중국인들과 더불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유럽인들이 의화단운동은 '기독교선교와의 전쟁'(a missionary war)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70]

로스는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부 개신교 선교사들의 행동에 문제가

68) 의화단이 사회를 장악한 후 '의화단 재판'을 거쳐 배교한 중국인 기독교인들에게 발급했던 '증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참'종교인 불교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Ross, Ibid., 14쪽.

69) Ross, *The Situation in China* Edinburgh : Andrew Elliot ; Glasgow : John M'Callum & Co, 11쪽.

70) Ross, Ibid., 9쪽.

www.kci.go.kr

있음을 인정하였다. 1807년에 광동(廣東)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개신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완만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1842년에 있었던 남경조약의 결과로 남부지방 항구들에서의 종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1860년의 북경조약 이후에는 해안지역을 넘어서서 내륙으로, 또한 북쪽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로스는 의화단운동 즈음에 중국 전역에는 다양한 전통과 특색을 가진 수천 명에 달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중국사회에 대한 무리한 인식과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 일부 [개신교] 선교사들의 열심이 신중하지 못하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선교사들이,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종종 의도적으로, 종종 의식하지 못한 채, 중국인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그들의 예절관념을 소홀히 대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생활의 이상을 그리 존중하지 않았다. 이따금, 중국인들과의 공감의 결여, 화를 분출하는 일, 그리고 어떤사람들이 보기에 피정복민이나 열등한 민족에게나 보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퉁명스러운 태도가 있었다.[71]

하지만, 기독교 측에서 의화단운동 발발의 가장 큰 책임은 가톨릭교회의 선교에 있다고 보았다. 로스는, "가톨릭교회를 중국에 설립하였던 유능하고 현명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었고 위대한 영향력을 얻었다"고 서술하여 16세기 말에 중국에 와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리치(Matteo Ricci)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72] 그러나,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교회와 정치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어 중국사회에서 반기독교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대의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www.kci.go.kr

71) Ross, Ibid., 12쪽.
72) Ross, Ibid., 13쪽.

> [로마가톨릭교회의] 정책은, 지난 해,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제국의 고위관료로서의 계급, 신분, 권위를 부여하도록, 중국정부가 교회에 의하여 강요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 … 이 정책은 중국 전역에 걸쳐 존재하며 250년 동안 로마가톨릭 성직자가 권력을 얻어 집행력을 발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기독교] 선교부를 정치적이라고 오해하는 중국인들의 신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 이 정책에 있어서 사제는 항상, 의문의 여지없이, 프랑스 공사(French minister)에 의해 지원된다.[73]

로스는 이렇게 "한탄스러운 봉기(deplorable uprising)를 초래했던 가톨릭교회의 교회-정치 연계정책은 미래를 위하여 강력히 견책되고 단호하게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야말로 일상의 선교현장에서 사제와 신자들의 무기소유 그리고 중국재판에 대한 불법적 관여라는 형태로 중국인에게 기독교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로마가톨릭 사제는 고위관리처럼 행세한다. 그는 스스로 무장하고 대규모의 또는 소규모의 무장한 수행원들에 의하여 동반된다. … 현재의 위기상황은 이전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사적으로 알려졌던, 로마가톨릭 선교사들이 수천자루의 소총을 그들의 신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었다. … 로마가톨릭 성직자들은,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조건으로 중국인 판관의 곁에 앉기를, 또한 재판관이 사제의 희망에 따라 판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얻어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 법은 무시되었고 정의는 경멸되었다.[74]

특히, 가톨릭 선교사들의 중국재판 관여문제는 중국의 평화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서구열강은 중국과 맺은 조약의 억압적 항목들을 수정하여 중국인들의 재판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중국에서 항구적 평화는, 서구열강이 로마가톨릭교회의 터무니없는 요구

www.kci.go.kr

73) Ross, Ibid., 14쪽
74) Ross, Ibid., 13・15쪽.

> 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 불가능하다. 중국인 재판관들이 그들의 신민들의 소송에서 신조(creed)나 어떠한 외국인과의 관련에 상관없이 그들의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서구국가들은 재판관들에게 공식적인 조약을 통하여 또한 명료하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만 한다. 중국 재판관들은 어떠한 외국인에 의한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75]

로스는 위에서 언급된 일부의 개신교 선교사들 및 가톨릭교회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중국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나 소송문제에 있어서 중국사회가 크게 저항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이 활동하는 만주지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선교사들이 의화단운동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진술은 부분적으로는 긍정되나 대표적 진술은 되지 못한다고 보는 셈이다. 다음의 인용은 그것에 대한 완곡한 변명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일부 선교사들의 부주의함이 항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부류의 외국인들에 의하여 백배로 부풀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선교사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지각없는 행동이 중국인들의 현재의 분노를 일으킴에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 더구나 대다수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불필요한 침해가 자신의 대상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신중을 기하였다. … 그리하여 만주의 선교사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주택의 위치나 높이에서, 그들의 복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중국인들을 사회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대우함에 있어서 그들의 겸양과 예의범절에 순응하도록 마음을 졸여왔다.[76]

종합적으로, 존 로스는 의화단운동의 본질은 반기독교운동이 아니며 반외세 및 반제국주의였다고 보았다. 그 운동은 '기독교선교와의 전쟁'(a missionary war)이 아니라, 일종의 제국주의자들과의 '문화적 전쟁'(a cultural war)이며, 중국인들의 "적대감(hostility)은 항상 정치적이며 결코 종교적이지 않

www.kci.go.kr

75) Ross, Ibid., 15쪽.
76) Ross, Ibid., 12쪽.

다"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를 접한 중국인들은 기독교교리보다는 선교사가 외국인이라는 점, 특히 "외국군대의 주구(forerunner)로 간주되는 외국인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의화단운동의 희생양이며 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그 운동과 대면하였으며 그들만이 그 폭풍을 바로 정면에서 맞았기 때문"[77]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역설했다. 비교적 단순한 설명일 수 있지만, 선교사들이야말로 항구의 유럽인들과는 달리 내륙에서 중국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있었고 의화단과 정부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위험지역에 남아있기를 원했으며, 내륙에 위치한 선교부의 부동산들은 항구의 외국인 조계지와는 달리 군대의 엄호를 받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의화단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자요 주원인으로 오해되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1872년 이래 만주 주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선교사로 일하였던 존 로스는 개신교 선교사의 입장에서 의화단운동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도교의 일파로서 절제운동에 헌신하고 외세배격운동에 나섰던 재리교(在理教)가 만주의 의화단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 것은 산동과 직예에서의 의화단운동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리교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재리교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천, 재리교와 의화단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관계, 재리교의 기독교와의 관계, 도교적 절제운동 그룹의 폭력성 등은 향후 활발한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로스가 묘사한 만주족 정권과 만주 의화단운동과의 밀월관계는 산동이나 직예에서의 상황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주족이 통치한 청

77) Ross, 1901, *The Boxers in Manchuria*, 2쪽.

www.kci.go.kr

나라가 심양을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도시로서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볼 때에 중앙과 만주의 정부가 의화단운동을 지원한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의 만주족에 대한 연구의 부흥과 더불어 이 주제는 많은 파생적인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 될 것이다.[78]

반외세 및 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의 의화단운동에 대한 로스의 인식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중국영토 침탈에 대한 그의 저항적 태도, 특히 중국인들의 영토에 대한 애정을 간파한 선교사의 역사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선교사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인식 또는 역사인식에 대한 동일성과 차별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한편, 20세기 초의 인식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로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제국주의에 대한 좁은 정의, 즉 영토와 군사적 활동에 국한된 제국주의 이해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좁은 정의는 어떤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지, 특히 당시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제국주의적 무역활동과 관련하여 그 이해가 어떻게 확대되어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

의화단운동과 관련한 로스의 가장 굵은 목소리는, 기독교 측의 피해가 가장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화단운동의 본질은 반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부는 정치적 첩보원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자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선교부는 이중적 의미에서 희생자일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오해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로스의 주장은 19세기 말 만주 및 여타 중국지역에서의 보다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병행될 때 더욱 설득적인 진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화단운동의 본질이 반기독교적 운동이 아니라는 로스의 명제는 다음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우선, 의화단운동의 반기독교적 태도와 행동이 과연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였는지 기독교에 대한 반대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의화단과 청나라 정부, 그리고 제국주의자들 간

www.kci.go.kr

78) 최근의 만주 및 만주족에 대한 연구들은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에 '기독교선교 때리기'는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일이다. 코바야시 카즈미(小林一美)는 기존의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첨병'이라는 도식은 "침략 대 애국이라는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도로 기독교를 비난했을 뿐이기 때문에 역사의 변증법적인 전개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버린 결과"를 낳았으며[79] 이처럼 단순한 '기독교 악인론'으로는 의화단운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아편전쟁에서 중일전쟁에 이르는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외국세력에 대한 극단적 경계심과 전면부정의 태도를 낳았을 테지만, 기독교 비판이 지극히 외재적, 교조적이며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회주의 독재권력과 그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및 한계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80]고 하여 사회주의적 역사서술의 일방성을 지적하고 의화단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빛을 던져주었다.

둘째로, 19세기 중국사회에 빈발하였던 구교(仇教)운동과 의화단운동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역사서술은 의화단운동을 '반제국주의애국운동'임과 동시에 19세기 중반부터 불거져왔던 중국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갈등이 폭발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의화단운동을 소위 교안(教案, missionary case)사건들의 정점으로 이해하고 '반제국주의운동'과 함께 '반기독교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81] 이러한 영향 하에 있는 중국기독교회 역사서들도 역시 '교안'(教案)과 '반양교운동'(反洋教運動)을 순차적인 것으로 보거나 아예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는 편이다.[82] 이웃나라인 한국이나 일본의 서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한 연구는, "화북의 의화단은 반기독교의 선두에 서서 '부청멸양'이란 슬로건을 건 종교집단

79) 小林一美 (코바야시 카즈미), 「의화단 연구에서 중국전체사 연구로」, 신해혁명연구회 엮음, 김종원 옮김, 1997, 『중국근대사연구입문』, 한울 아카데미, 127쪽.

80) 小林一美 (코바야시 카즈미), 앞의 책, 136쪽.

81) 李志亭, 앞의 책, 591~607쪽.

82)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 『中國天主教基础知識』, 北京：宗教文化出版社, 219~ 243쪽 ; 姚民權, 羅偉虹, 2000, 『中國基督教簡史』, 北京：宗教文化出版社, 121~127쪽 ;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 『中國基督教基础知識』, 北京：宗教文化出版社, 72~75쪽.

이 지도하는 반제국주의봉기였다. … 그것은 구미인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하여 이에 강렬한 반기독교운동의 의화단이 생겨났다."[83]라고 하여 의화단운동을 반제국주의와 반기독교의 동기가 매우 밀접하게 복합된 어떤 것으로 기술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속성'을 입증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로스가 암시하는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연구를 위하여는, 의화단운동과 이전의 구교운동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어떤 구조적 유사성 또는 상이성이 있는 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화단은 왜 '반봉건'의 기치를 내버리고 '반기독교적' 행동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화단운동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에 열중한 나머지 사회개혁운동으로서는 타락의 길로 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오노신지(小野信爾)는 "의화단은 합법성을 획득하고 더욱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와 동시에 구교, 배외에 공감하는 지주계급과 보수파 관료가 이에 동조, 지지하는 가운데 그 반봉건, 반권력적 성격은 급속히 탈각할 수밖에 없었다"[84]고 하여 당시 의화단운동을 이끌었던 민중적 인식의 한계 및 경제, 정치적 세력이 운동의 노선에 끼쳤던 자의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 2011년 4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31일

83) 松丸道雄 외, 1990,『중국사개설』, 증보판, 한울아카데미(1985), 378~379쪽.
84) 小野信爾 (오노신지), 1996,「청말의 구교운동」; 窪德忠, 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중국종교사』, 한울아카데미, 1996(1967, 『宗教』), 313쪽.

www.kci.go.kr

참고문헌

羅偉虹, 2004,『中國基督教』, 五州傳播出版社.
牟鐘鑒, 張踐, 2003,『中國宗教通史』下(修訂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백준기・최정수・정상수・최재희, 2007,『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世界宗教研究所基督教研究室(編), 1999,『中國基督教基础知識』, 宗教文化出版社.
小野信爾, 1996,「청말의 구교운동」; 窪德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중국종교사』, 한울아카데미.
小林一美, 1997,「의화단 연구에서 중국전체사 연구로」; 신해혁명연구회, 김종원 옮김,『중국근대사연구입문』, 한울아카데미.
松丸道雄 외, 1990,『중국사개설』증보판, 한울아카데미.
신승하, 1990,『중국근대사』, 대명출판사.
신해혁명연구회(편)・ 김종원 옮김, 1997, 『중국근대사연구입문』, 한울아카데미.
晏可佳, 2004,『中國天主教』, 五州傳播出版社.
姚民權・羅偉虹, 2000,『中國基督教簡史』, 宗教文化出版社.
유지원・김영신・김주용・김태국・이경찬, 2010,『근대만주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동진 외, 2010,『중국동북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은자, 2002,『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李志亭, 2003,『東北通史』, 鄭州：中州古籍出版社.
왕치심, 전명용 옮김, 1988,『중국종교사상사』, 이론과 실천.
존 킹 페어뱅크, 1994, 중국사연구회 옮김,『新中國史』, 까치.
한석정 외 지음,『근대만주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한석정, 노기식 편, 2008,『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차경애, 1994,『義和團運動과 帝國主義列强：義和團運動과 鎭壓過程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An Outline of the Russian Orthodoxy in Manchuria," *Contemporary Manchuria* vol.II no.6 (November 1938).
Bickers, Robert and R. G. Tiedemann, ed., *The Boxers, China, and the World*,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Cohen, Paul A., *History in Three Keys :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Crossley, Pamela Kyle, *The Manchus*, 1997.

www.kci.go.kr

_____, *Empire at the Margins : Culture, Ethnicity, and Frontier in Early Modern Chin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2006.

De La Serviere, Joseph, "The Work of the Catholic Church in China," *Chinese Recorder* vol. 44 (October 1913)

Doubrovskaia, Dina V.,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n China," Stephen Uhalley and Xiaoxin Wu (ed.) *China and Christianity* Armonk and London : M. E. Sharpe, 2001.

Esherick, Joseph W., *The Origins of the Boxer Uprising*,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Hsü, Immanuel C. Y., "Late Ch'ing Foreign Relations, 1866~1905," In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Late Ch'ing, 1800~1911* part II vol.11, London, New York, and Melbourn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Isett, Christopher Mills,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Mark C. Elliot, *The Manchu Way : the Eight Bannere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2001.

Omelvena, Ethel, *Sketches from a Medical Missionary's Life in Manchuria, 1898~1929*. 1957. The Centre for the Study of World Christianity, University of Edinburgh. Ref. #40, Box #1.

O'Neill, F. W. S., *The Call of the East*, London : James Clarke & Co., 1919.

Rhoads, Edward J. M., *Manchus and Han :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Yoshiki Enatsu, *Banner Legacy : The Rise of the Fengtian Local Elite at the End of the Qing*. University of Michigan, 2004.

Ross, John, *Chinese Foreign Policy*, 1877.

_____, *Corean Primer*, Shanghai :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_____, *History of Corea*, London : Elliot Stock, 1891.

_____,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1881.

_____, *Mission Methods in Manchuria*, New York, Chicago, Toronto, London and Edinburgh : Fleming H. Revell Company, 1903.

_____, *The Boxers in Manchuria*, The Church of Scotland Office, 1901.

_____,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Religions*, Glasgow : Philosophical Society of Glasgow, 1900~1901.

_____, *The Manchus*, Paisley : Parlane, 1880.

_____, *The Original Religion of China*, Edinburgh : Oliphant Anderson & Ferrier, 1909.

_____, *The Situation in China*, Edinburgh : Andrew Elliot ; Glasgow : John M'Callum &

www.kci.go.kr

Co., 1901(?).
The Missionary Heral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Sept. 1900).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June 1892).

www.kci.go.kr

■ Abstract ■

The Manchuria Missionary John Ross' Understanding of the Boxer Uprising

Park, Hyung－Shin

John Ross(1842～1915), a Scot who was sent by the Foreign Mission Boards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UPC) of Scotland in 1872, worked as a resident Protestant missionary in Manchuria. After the Boxer Uprising occurred, he had chances to speak and write about the shocking incident. The Boxer Uprising started in Shandong and Chilli (Hebei) in 1899 and spread to Manchuria by the next year. Its mottos included 'Protect the Empire and Exterminate the Western' which meant the support of the Qing dynasty and the denouncement of foreign power. After taking a preparatory period, the Boxers of Manchuria, over about two months in June and July, set the Christianity-related properties on fire, killed foreign missionaries and Chinese converts, and attacked the things that might signify the foreign power and imperialism everywhere in the Dongbei(Manchuria) of Fengtien, Kirin, and Heilungkiang Provinces. Ross emphasized that the Zaili (Tsaili) religion advocating the cause of temperance movement aggressively participated in the Boxer Uprising and showed enthusiastic and destructive characters with its great number of members. Also, many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Manchus such as 'the Rank No.2 official Chin Chang'(晋昌) and the troops voluntarily helped the Boxers probably under the connection to the Empress Dowager's government at the capital. Ross, who has been engaged in missionary works for about twenty eight years in China, sympathized with the Chinese nationalism which erupte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century and viewed the essence of the Boxer Uprising as 'anti-foreign' and 'anti-imperialistic' movement. The imperialistic activities of Germany, which

www.kci.go.kr

took control of Jiaozhou Bay on the pretext of the Shandong missionary case (曹州教案) of 1897 and proceeded to win concessions in the Shandong peninsula, were, in his view, the principal cause of the uprising. In addition, he claimed that the Boxers' harsh punishment for having any western thing or having relation to foreigners revealed the 'anti-foreign' and 'anti-imperialistic' essence of the uprising. Finally, the missionary Ross discussed about whether the Boxer Uprising was 'anti-Christian' or not. He criticized the Roman Catholic Church for its church-politics policy in which the church sought for political power in Chinese society. He judged that the priests' bossy manner as a high official and their intervention in the Chinese trials were the main problems responsible for the uprising on the Christian Church's side. He also recognized that some Protestant missionaries' arrogant manner against Chinese society was in trouble, too. Finally, he summarized that the Boxer Uprising was not a 'missionary war' but a 'cultural war' against the imperialists and, thus, the essence of it was not 'anti-Christian' but 'anti-foreign and anti-imperialistic.' His study on the Boxer Uprising in Manchuria may encourage the study of the role of the Zaili religion and the Manchus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uprising. In addition, his work may allow a chance to peep into the missionaries' view on the imperialistic aggressions of the Powers in China. Most of all, he suggests a reconsideration of the traditional and socialistic historiography on the topic of Boxer Uprising, which stigmatized the Christian missions in China as a political agency of the imperialistic western Powers.

www.kci.go.kr

Key words : John Ross, The Boxer Uprising, Manchuria, Zaili Religion (Tsaili Religion), The Manchus, Anti-Imperialism, Anti-Christianity, Anti-foreign Campaign